축구 대표팀 선발…주말 잊은 허정무 감독

“선발 제1기준은 경기력과 팀 조화”

K-리그 찾아 기량 점검…“이동국 발탁 보약될 수도, 독약될 수도”

허정무(54) 축구 대표팀 감독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진출은 확정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K-리그 경기장을 직접 찾아 대표팀 선수로 뽑을 만한 국내파들의 기량과 컨디션을 직접 점검하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부터 대표팀을 이끌어 왔지만 허 감독에게 대표팀 선발 작업은 절대 만만치가 않다.

추가로 단 1명을 뽑더라도 정해성 수석코치와 박태하, 김현태 코치 등 코치진과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다.

대표팀 선발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미래를 짊어질 선수를 직접 고른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한 축구 선수의 인생까지 바꿔놓을 수 있어서다.

한국이 A매치를 치르기 전 허정무 감독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허 감독은 한 번 뽑았다고 해서 계속 대표팀에 선발하는 것도 아니다. 경쟁을 유도해야하고 포지션별로 더 나은 선수가 있는지 항상 비교하고 분석해야 한다.

허 감독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선발 기준 1순위로 경기력과 팀 조화를 꼽았다.

그는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팀플레이에 녹아들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라 해도 팀에 녹아들 수 있는지 팀에 맞는 선수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나뭇가지 한 개는 그냥 부러지지만 10개면 안 부러진다. 이게 조직력의 힘”이라고 팀의 화합을 거듭 강조했다.

물론 “대표팀은 코치진과 논의, 객관적 토론을 통해서 뽑는다. 많이 맞는 편이다. 엉뚱한 일이 생기진 않는다. 박지성에게 대표팀 주장을 맡긴 것도 논의를 거쳐 정한 것이다”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허 감독이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정신력.

그는 “투쟁력은 기본 필수 사항이다. 대표팀 선수들은 프로정신과 함께 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팀을 위해 희생하고 도움되는 선수라면 당연히 원하고 그런 선수들이 많을수록 팀은 더욱 강해진다”고 했다.

특히 허 감독은 유럽축구와 한국축구를 비교해 K-리그 선수들의 더욱 적극적인 투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허 감독은 “박지성과 이영표는 몸으로 터득했다”면서 둘의 활약은 예외로 인정했다.

허 감독은 또 대표팀 발탁 논란이 이는 이동국(30.전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이동국은 잘 뽑으면 보약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팀에 잘 적응하고 본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허정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표팀에 뽑히고도 정작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동국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허 감독은 “누구는 밉다라는 선수는 없다. 좋은 선수가 되길 바라고 잘 커 나가길 기대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연합뉴스

체조 특급스타 총출동 서울 갈라쇼

9월 19~20일 잠실 실내체육관

뜀틀의 제왕 마리안 드라굴레스쿠(29·루마니아)와 리듬체조 여왕 에브게니아 카나에바(19)를 서울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지난해 6월 리듬 체조의 우아한 율동과 기계체조의 역동적인 연기를 모두 담은 체조 갈라쇼를 최초로 선보여 비인기 종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끌어냈던 현대캐피탈이 올해는 멤버를 대폭 보강해 더 화려한 쇼를 준비했다.

‘현대캐피탈 인비테이셔널 2009 세계체조갈라쇼’가 9월19~20일 이틀간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점수 위주의 딱딱한 연기를 뛰어넘어 인간의 몸을 예술로 승화한 아트쇼를 지향한 갈라쇼는 기계, 리듬 체조 뿐 아니라 아크로바틱, 서커스에서 활동 중인 선수도 초청,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전망이다. 또 작년에는 베이징올림픽 직전에 열려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빠졌다면 올해는 굵직한 세계 대회가 없어 스타급 선수들을 여럿 데려왔다.

주관사 세마스포츠마케팅이 14일 발표한 출연진 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드라굴레스쿠와 카나에바다.

체조 강국 루마니아 출신인 드라굴레스쿠는 뜀틀의 전설로 불린다. 2001년과 2005~2006년 세 차례나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뜀틀 정상을 밟았다. 지난 1월 은퇴를 선언해 현역을 떠났지만 기량만큼은 여전히 독보적이다.

작년 베이징올림픽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딴 러시아 출신 카나에바는 설명이 필요없는 지존. 12일 폐막한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개인종합 우승에 이어 출전한 개별 4개 종목마저 차례로 휩쓸면서 대회 최다인 5관왕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황소 뿔났다 14일(한국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열린 산 페르민 축제에서 스페인 출신의 투우사 안토니오 페레라가 투우 돌로레스 후엔테 임브로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힘든 길이라 선택했다”

사우디 알 힐랄 ‘깜짝 이적’ 이영표 출국

“축구 선수로서는 나이가 많지만, 인간으로선 아직 어리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명문 알 힐랄로 ‘깜짝 이적’을 선택한 이영표(32·알 힐랄)의 표정은 너무나 밝았다. “어려운 길이어서 선택했다. 환경이나 문화가 적응하기 어렵다는 게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이영표의 눈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로 초롱거렸다.

이영표는 1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알 힐랄이 전지훈련 중인 오스트리아로 떠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주변에서 갑작스럽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의가 와서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알 힐랄로 이적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영표가 종교는 물론 문화적으로 낯선 사우디아라비아를 새로운 둥지로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영표는 “축구 선수로선 나이가 많지만 인간으로선 어리다. 남들은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 어려운 길이어서 더 가야만 한다”라며 철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적응이 어렵다는 게 더 매력적이다. 도전 의식을 가졌다기 보다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다”라며 “조건만 낮춘다면 유럽에서 계속 뛸 수도 있었지만 유럽 무대는 충분히 경험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순천대서 전국대학양궁 선수권 17일까지 4일간

순천대(총장 장만채)에서 대학양궁의 제전이 시작됐다.

한국대학양궁연맹이 주최하는 제12회 한국대학양궁 오픈선수권대회가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4일간 순천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순천대, 한국체육대, 계명대, 경희대, 안동대, 광주여대, 호남대 등 전국 16개 대학에서 남녀 대학생 궁사 122명이 참가, 싱글라운드(퀄리피케이션 라운드) 올림픽라운드(개인전) 아카데미 라운드(단체전) 부문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순천대에서는 박진성 감독과 김문선 코치의 지도로 사회체육과 이현주(4학년) 조예진(2학년) 윤설이(1학년) 최지연(1학년) 선수가 여자부에 출전한다.

순천대 관계자는“양궁의 메카 순천에서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순천대학교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한 만큼 참가선수들 모두가 우수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기록을 남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스포츠중계

15일(수)

▲제61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 대회 〈부산공고 : 제물포고〉(12 : 50·Xports)

▲2009 한일 실업 탁구정기전 남자단체전 (15 : 00·KBS n스포츠)

▲2009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야쿠르트〉(17 : 50·SBS스포츠)

▲2009 프로야구〈두산 : 삼성〉(18 : 10·KBS n스포츠) 〈KIA : 히어로즈〉(18 : 15·MBC ESPN) 〈한화 : 롯데〉(18 : 15·X-ports) 〈SK : LG〉(21 : 00·SBS스포츠)